

明初朝鮮關係史研究, 박원호

1. 表箋문제

- 조선왕조가 수립된 1392년은 명과 고려가 통교를 시작한지 25년이 지난 시점. 명태조 홍무제는 공민왕 17년부터 조선 태조 7년까지 31년간 재위. 반원정책을 추진하던 공민왕은 명이 수립되었을 때 이를 크게 환영. 원의 연호를 폐지하고 명태조에 封爵을 요청. 우호적인 관계.
- 1372년 명은 요동의 원 잔존세력인 나하추를 공격. 나하추가 명의 군사보급기지인 牛家莊을 습격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힘. 홍무제는 이 공격에 고려가 공모했다고 의심. 노골적으로 고려를 비난하면서 조공을 1年 3使에서 3年 1使로 변경할 것을 요구, 사행도 요동을 경유하지 못하도록 함. 1374년 친명의 공민왕 암살로 의심은 더욱 깊어짐. 明使 암살사건도 관계 악화에 일조.
- 1388년 위화도회군으로 정권을 장악한 이성계는 공양왕을 폐위시키고 새 국왕으로 즉위한 후 명에 이를 알린 후 명태조에게 즉위의 승인을 요청. 신왕조의 정통성 수립에 긴요. 홍무제는 걱정했던 바와는 달리 “이성계가 일을 꾸민지 이미 여러 해가 되었는데, 이제야 확연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담담하게 수용. 한걸음 더 나아가 “고려는 산이 경계를 이루고 바다가 가로막아 하늘이 만들어 준 東夷이므로 우리 중국이 통치할 바는 아니다. 너희 예부에서는 회답하는 문서에, 聲教를 자유로이 할 것이며, 과연 하늘의 뜻에 따르고 사람의 마음에 맞추어 동이의 백성을 편안하게 하며, 변방에서 變端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사절이 서로 왕래하게 될 것이니 이는 실로 그 나라의 복이 될 것이다. 문서가 도착하는 날에 국호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 빨리 보고하도록 하라.”
- 조선은 ‘和寧’과 ‘朝鮮’의 두 이름을 지어 명에 선택을 요청. 명태조는 “동이의 국호에 조선이란 이름이 아름답고도 유래가 오래되었으니 그 이름을 이어 받고 하늘을 본받아 백성을 다스려서 후사를 영구히 번성하게 하라.”
- 조선은 태조~성종대에 매년 평균 3회 이상의 사절을 명에 파견. 신년에 파견하는 賀正使, 황제의 생일에 보내는 聖節使, 황태자의 생일에 보내는 千秋使의 정기적인 조공사절. 이외에도 보고나 해명할 일이 있을 때 보내는 奏聞使 또는 計稟使, 특별한 요청을 하기 위한 奏請使,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보내는 謝恩使, 황제의 등극이나 황태자 책봉을 경하하기 위한 進賀使, 상사가 있을 때 보내는 陳慰使와 進香使, 조선의 국왕이나 왕비가 서거했을 때 보내는 訃告使, 황제가 지방을 순행하거나 원정을 갈 때 보내는 欽問起居使, 특별한 공물을 별도로 바칠 때 보내는 進獻使. 명사의 조선 파견은 연평균 1.13회. 1/6수준.
- 조선태조 2년 홍무제는 명사를 보내 조선이 명을 업신여기며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手詔를 전달. ‘生罽 3개조’와 ‘侮慢 2개조’. ① 兩浙의 불량한 자가 중국의 소식을 조선에 전한 까닭에 이미 수십 가를 살육하였으니 이것이 생흔의 제1이다. ② 사람을 요동에 보내 行禮를 가장하고 布帛과 금은으로써 요동의 邊將을 유인하니 이것이 생흔의 제2다. ③ 최근에 비밀리에 사람을 요동에 보내 여진을 유인하여 그 가축 500여인과 함께 압록강을 건너갔으니 이것이 생흔의 제3이다. ④ 입으로는 조공을 하면서 늘 작고 쓸 수 없는 말을 보내니 이것이 모만의 제1이다. ⑤ 국호를 개정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식이 없으니 이것이

모만의 제2이다. 군대를 보내어 정벌함이 마땅하나 유인해간 여진인을 송환한다면 정벌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

- 표전문제: 조선이 명에 보낸 표전 속에 '譏侮' 또는 '戲侮'의 뜻이 있는 글자가 섞여 있음을 지적하면서 조선 사신을 억류하고 책임자를 압송하도록 요구한 사건.
- 제1차 표전사건: 태조 4년 하정사의 하정표문이 문제가 됨. 표문 속에 '輕薄戲侮'의 문구가 있다고 하여 사신을 억류시키고 찬문자로 정도전을 지목하고 그의 笮送을 요구. 조선은 찬문자 김약항을 명에 관송하면서 "조선의 聲音과 언어가 중국과 다른 데다 학문이 천박하고 표전의 체제를 제대로 알지 못해 언사가 경박하게 되었을 뿐 고의로 회모의 뜻을 나타난게 아니었다"고 해명. 정도전의 관송 요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무시.
- 제2차 표전사건: 같은 해 11월 국왕의 誥命과 印信을 요청한 주청문 속에 '引用紂事'한 것이 무례하다고 사신을 억류하고 찬문자와 교정자의 압송을 요구. 조선은 하륜을 계품사로 삼아 명에 파견. 정도전은 제외. 명은 정충, 김약항, 노인도를 억류, 일부는 귀국시킴.
- 제3차 표전사건: 태조 6년 천수사의 千秋啓本을 문제 삼음. 조선은 찬문자인 조서를 관송하여 명에 보냄. 3인을 추가 관송하던 중 홍무제 사망으로 사건은 일단락됨.
- 명의 文字獄. 홍무제의 비천한 출신성분으로 인한 콤플렉스. 금기시되는 문자. 중의 민머리를 상기시키는 光, 禿, 僧 및 승과 발음이 비슷한 生, 홍건적의 賊과 비슷한 발음의 則. 조선도 이러한 점을 어느 정도 알아채고 3차 표전사건 당시 명에 "조정 의 문자양식과 회피해야 할 글자를 알지 못하여 이런 착오를 일으킨 것이니 ... 앞으로의 문서가 또 다시 회피해야 할 글자들을 小邦에 내려주소 오래 준수하게 하소서"라고 요청.

2. 요동정벌논쟁

- 정도전의 요동정벌론은 표전문제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음. 하지만 이미 1393년에 정도전은 陣圖인 '四時蒐狩圖'를 작성하여 태조에게 절제사가 거느리고 있는 군사 가운데 전략 있는 자를 뽑아 진도를 가르치자고 제안. 군제개편을 단행. 사병혁파를 통해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의도. 하지만 실제로 강도 높은 군사훈련 역시 실시. 진도의 제작과 강습, 훈련 상태의 점검, 병제의 개혁, 군대 기강의 확립, 병기 제조 등 군사력 강화.
- "정도전은 남은과 결탁하고 남은으로 하여금 상서하여 아뢰게 하기를 '士卒은 이미 훈련되었고 糧餉도 이미 갖추어 졌으니 때를 타서 동명왕의 옛 강토를 회복할 만합니다.'라고 하였다. 태상왕은 자못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남은이 여러 번 말하므로 태상왕은 정도전에게 물었다. 정도전은 지난 옛날 外夷로서 中原에 들어가 王者가 되었던 일(往古外夷得中原王者)들을 차례로 들어 논함으로써, 남은의 말이 믿을 만하다고 하였다."
- 조준의 반대: ① '以下犯上'은 가장 큰 불의로서 사대의 禮가 아니다. ② 건국초기에 명분이 약한 군사행동을 경솔하게 일으키는 것은 옳지 않다. ③ 백성들이 대규모 土木役事에 시달려 민생이 극도로 피폐하며 민심이 불안하다. ④ 糧餉이 넉넉하지 못하다. ⑤ 명의 정세에 틈탈만한 아무런 약점도 발견할 수 없다.
- 조선태조시대 대명관계는 태종 이후의 대명관계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해해야 함. 조선이 요동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경향은 그 시대에는 일반적인 분위기였음. 요동공벌은 요동 전체를

석권하겠다는 것이 아닌 명이 요동경략과 여진초무를 위해 설치한 전진기지인 遼東都指揮使司가 위치한 遼陽城의 함락을 목표로 했음. 명대 요동에는 府, 州, 縣과 같은 일반적인 행정단위가 아닌 군사단위인 衛所를 군정기관인 도지휘사사가 관장하여 군사통치를 실시. 요동도사를 함락시키면 명의 요동진출을 저지하기 쉬워지고 요하를 경계로 명과 대치할 수 있었음. 고려공민왕 19년 이성계는 요양성을 일시적으로 점령함. 이때 요서에 있는 금주, 복주 등지에 포고한 방문에서: “우리나라는 堯와 함께 竝立하였다. 周武王이 기자를 조선에 봉하고 서쪽으로 요하에 이르는 땅을 내주어 대대로 강역을 지켜 왔다. ... 무릇 요하 이동 본국 강토 내의 백성과 대소 頭目官 등은 속히 와서 내조함으로써 함께 爵祿을 누릴 것이 며....”

- 홍무제는 조선이 요동공벌을 감행할지도 모르며 그 계획의 중심에 정도전이 있다고 믿음: 태조 원년 “정도전은 여기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山海衛를 지나면서 사람들에게 이끄기를 ‘잘되면 좋지만, 잘못되면 와서 한바탕 搶掠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도전이 위험인물임을 거듭 강조. “지금 조선국왕 이성계가 쓰는 문인인 정도전이란 자는 왕에게 무슨 도움이 된단 말인가? 왕이 만일 깨닫지 못한다면 이 사람이 반드시 화의 근원이 될 것이다.”
- 명의 의구심과 위협. 명태조: “조선 국왕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다. 홍무 21년에 너희 조그만 나라 군마가 압록강에 이르러 장차 이르러 장차 이 중국을 치려 하였다. 그 시절에 이성계가 단번에 회군하여 지금과 같이 왕위를 얻었고 고려는 국호를 조선이라 고쳤으니 자연의 천도이다. 조선국왕은 정성이 지극한데 지금 두 나라 사이에 秀才가 매양 농간을 부려 끝지 않고 바르지 못하다.” “네가 돌아가거든 분규를 일으키지 말도록 왕에게 일러라. 소인의 말을 듣고 함부로 도발하다가 앞으로 모든 것을 망치게 될 것이다.” “이제 조선에서 온 몇 유생은 돌려보내지 마라. 대개 이 무리들은 고급에는 대략 통하나 대도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얕은 꾀로써 희모를 농간한다. 만약 조선이 廢置된다면 바로 이 몇 유생이 한 짓 때문이다.” “이로써 본다면 한, 수, 당, 요, 금 원나라 등 몇 시대에는 삼한을 주재하는 사람이 겨우 약간의 말썽만 있더라도 그 전대의 황제들은 분연히 군사를 일으켰다. 그 백성들이 해를 입음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일은 비록 옛날 일이지만 전쟁으로 인한 재앙을 고요히 생각해 본다면, 누가 마음이 선뜻하지 않겠는가?” “듣자하니 그들은 국도로부터 압록강에 이르기까지 요충지에 비축하는 군량이 매 역마다 1, 2 만석 혹은 7, 8만석, 10수만 석이고 사람을 보내 東寧의 여진을 유인하여 국경을 넘어오게 하고 있으니, 이는 그 뜻에 반드시 깊은 음모가 있는 것이다.”
- 조선은 사대조공이라는 이름 아래 자기발전을 모색. 명과의 사이에 이해충돌을 일으킴. 양국의 이해가 가장 예민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요동으로의 세력 확장. 명은 조선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요동진출을 우려. 당시 명은 요동의 몽고 잔존세력을 일소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여진족을 본격적으로 招撫하지 못한 상태. 조선은 조선대로 명의 내침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었음. 조선이 명의 내침 가능성을 우려했다는 증거보다 명이 조선의 요동 내침을 우려했다는 증거가 훨씬 많음.
- 이 시대의 조선은 새로운 사회 문화의 정형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선택의 여지가 많고 탄력성이 풍부한 국가. 새로운 국가의 건립자들은 급격한 전진의 습성을 가짐. 건국 이후에도 개혁자로서의 면목을 지니고 있었음.

3. 靖難의 役과 조선

- 1398년 홍무제 사망, 건문제 즉위. 조선에서도 왕자의 난으로 정도전 몰락, 태조 퇴위, 정종 즉위. 건문제는 親王의 藩을 폐지하려 함(홍무제는 황자 25명을 친왕으로 분봉, 이들 중 18명이 각지에 就藩. 만리장성 주변에 배치되어 塞王으로 불리던 친왕들은 몽고와의 잦은 전투를 통해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 1399년 北平의 燕王이 거병, 이후 3년 간의 내전. 연왕은 건문제에 승리를 거두고 영락제로 즉위. 명성조.
- 정종 앞으로 보낸 조선에서 건문제는 “너는 천도를 순히 받들고 번의를 공손히 지키어 사악함에 현혹되지 말고 가짜에 놀라지 말도록 하고...” 정치적 혼란 속에서 건문제는 이방원의 왕위 계승을 순순히 인정. “만일 천리를 어기고 인륜에 어긋나는 일이 없거든 그 나라 스스로의 주장에 맡기도록 하라” 조선국왕의 誥命과 印章을 수여. 조선이 국왕의 면복을 요청하자 파격적으로 명의 친왕작의 대우인 九章服을 하사. 전마로 쓸 말 1만 필의 교역을 요구. 조선은 7천 필을 제공.
- 영락제의 즉위에 대해 조선은 기민하게 대처. 영락제의 즉위를 알리는 명의 사신이 아직 개경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륜을 賀登極使로 선정. 영락제는 “사신이 도착한 이튿날 곧바로 출발하였구나”라고 감탄. 영락제는 새로운 고명과 인장을 수여, 약재를 무상으로 하사, 표전문제로 억류되어 있던 조선 사신들을 석방, 면복과 서책도 지급하는 등 환대. 명 사신 黃儼은 태종에게 “새로 보위에 오르신 뒤에 천하제후로서 와서 조회하는 이가 없었는데 조선만이 上相을 보내어 진하하였으니 황제가 그 충성을 아름답게 여기어 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연왕 시절부터 고려 사신, 조선 사신들은 연왕을 방문하여 예물을 보냄. 조선태조 3년 남경으로 가던 이방원과의 만남.
- 영락정권은 대외팽창적. 영락제는 대군을 이끌고 ‘五征漠北’ 몽고 원종. 정화원정. 1406년에는 왕위계승의 부당성을 이유로 安南을 공격하여 점령, 20년간 직접 통치. 북경천도 단행. 본격적으로 여진 초무정책을 추진. 요동지방을 통치체제 편입시키려 함. 조선은 요동진출을 봉쇄당함. 권근: “전하께서 온갖 충성을 다해 사대하는 정성으로 황제의 특별한 대우를 믿고 계시나 황제께서 동쪽 변두리에 建州衛를 설치하였으니, 이것은 우리의 목을 조르고 오른팔을 누리는 격입니다. 밖으로는 雄藩을 세워 우리 인민을 유인하고 안으로는 남다른 은총을 더하여 우리의 방비를 늦추고 있으니, 그 뜻을 진실로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4. 여진문제

- 명 영락제의 여진초무. 두만강 유역의 여진 초무, 海西지구로 북상하여 흑룡강 유역까지의 여진 초무. 영락 원년 요동지역에 建州衛와 兀者衛를 설치. 영락 7년까지 115개의 女眞衛所 설립. 명의 여진초무는 몽고제압전략과 밀접히 연관됨.
- 조선은 두만강 유역에 거주하는 오도리, 울랑합, 울적합 등의 여진이 원래 자기에게 속한다고 인식. “여말에 이성계의 공적은 왜구를 격퇴한 것보다도 여진을 초무한 것이 더 큼”. 태종은 金臚를 계품사로 남경에 파견하여 公嶮鎭 이남의 땅은 원래 조선 영토로서 그곳에 살고 있는 여진을 조선이 관할할 수 있도록 요청. 영락제는 10처 인민의 관할을 승인.

- 이후 여진초무를 둘러싸고 명과 조선은 각축을 벌임. 조선은 여진 각부에 하사품 공세를 펴. 그러나 태종 5년 오도리의 동맹가첩목아가 명에 입조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음. 영락제는 동맹가첩목아의 입조를 조선이 막고 있다도 비판. 태종: “맹목가첩목아는 소방의 지계인 공협진 이남으로, 황제께서 허락하신 10처 안의 경성 지면인 두만강 안쪽에 사는 사람입니다. 일찍이 신으로 하여금 출발시켜 보내라는 분명한 명령은 받지 못했습니다.” 영락제는 “짐은 그 땅을 아우르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무리들은 예로부터 변경을 침략하여 송대에는 세폐를 내렸지만 끝내 커다란 환난을 만들고 말았다. 이제 이미 입조하였으니 바라는 대로 관직을 주고 적절히 회사를 하여 작은 비용을 들임으로써 큰 환난을 미리 막고자 하는 것이다. 조선의 땅도 또한 짐의 법도 안에 있는데 짐이 무엇 때문에 다투겠는가?”
- 여진이 명의 초무에 응한데 대해 불만을 가진 조선은 여진과 소금, 철, 마소 등을 교역하던 慶源 교역을 중단시킴. 울적함의 金文乃 등이 경원을 공격했다가 격퇴 당함. 또 울량함이 경원을 습격하여 병마사를 폐사시키는 사건이 발생. 조연으로 하여금 토벌하게 함. 우두머리 뿐만 아니라 부족 수백 인을 학살, 가옥 파괴. 영락제는 “이 울량함이 참으로 그렇게 무례하다면 우리가 요동의 군마를 조발하여 가고 너희도 군마를 조발하여 와서 저 놈들을 깨끗이 잡아 죽이자 ... 이후에도 다시 그렇게 무례하면 용서하지 말라. 이후에 다시 와서 노략질하지 않는다면 양쪽이 화친하도록 하라”고 함. 여진을 명의 위소 단위로 편입한 상태에서 조선의 군사력으로 이들을 견제하겠다는 以夷制夷 전략.
- 다른 한편, 태종은 명이 조선을 공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음. 태종: “우리 황제가 본래 큰 것을 좋아하고 공 세우기를 기뻐하니 만일 우리나라가 조금이라도 사대의 예를 잃는다면, 황제는 반드시 군사를 일으켜 죄를 물을 것이다. 나는 생각하기를 한편으로는 지성으로 섬기고, 한편으로는 성곽을 튼튼히 하며 군량을 비축하는 것이 오늘날의 가장 급무라고 여긴다.”
- 세종 연간에는 여진족이 조선의 閔延 침략. 조선은 최윤덕으로 하여금 평안도 1만 정군과 황해도 5천 군마를 동원하여 압록강을 넘어 파저강까지 진출하여 여진 토벌. 명에는 구체적으로 토벌계획을 알리지 않음. “지금도 파저강 야인들은 또 도둑질을 하려고 변경의 고을을 엿보고 있는 중이어서 만약 갑자기 침입을 당하게 되면 사변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邊將을 시켜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적당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가 기회를 보아 처치하게 하였습니다.” 분개한 명의 요동총병관은 조선의 문책을 주장. 명 선종은 “遠夷가 서로 다투고 싸우는데 시비가 분명치 않으니 어찌 어느 한 편의 주장만을 들겠는가”라고 이를 기각.
- 이후 동맹가첩목아가 피살되고 조선은 이를 두만강을 국경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실천에 옮길 기회로 인식. 세종: “내 생각으로는 동맹가첩목아 부자가 일시에 사망한 것은 마치 하늘이 멸망시킨 것과 같다. 이제 그 기회가 이와 같으니 그것을 잃을 수 있겠는가? 더구나 두만강이 우리의 국경을 빙 둘러싸고 흐르니 하늘이 만든 險固로서 옛 사람이 큰 강으로 城池를 삼는다고 한 뜻과 매우 합치한다.” 4군6진 개척.

기타: 금은세공의 면제 ‘擬本國請免金銀方物表’ 명선종 이후 마필과 포자로 금은세공을 대체 關人과 처녀의 진헌. 원의 요구로 시작. 명이 답습.

宗系辨誣問題. ‘皇明祖訓’에서 이성계의 아버지를 李仁任으로 오기. 180년만에 해결.